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교육원 1기 배출

50명 입학해 49명 수료…입소문 타고 교육 인기

1기 수료식 및 보살계 수계식
흥교 대종사 참석, 대중 격려
'붓다볼 명상 지도자' 호응 커
2기 교육과정도 빠르게 마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 스님)이 2월 29일 대학 내 대강의실에서 '승려교육원 1기 수료식 및 보살계 수계식'을 거행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승려의 위의(威儀)와 자질, 능력 함양을 목표로 지난해 3월 8일 승려교육원을 정식 개원했고 이번 수료는 첫 결실이다. 특히 현대사회에 어울리는 포교방안을 고심하는 스님들을 위해 '붓다볼 명상지도사' 과정을 개설해 높은 인기로 마무리됐다. 붓다볼 명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명상법을 안내받은 스님들이 직접 입소문을 냈고, 전국의 스님들이 발걸음을 옮겨 강의를 찾았다. 이번 강좌는 개설 후 바로 선착순 마감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했다. 포교를 위한 스님들의 자비심에 더해 실질적인 방안을 안내한 것이 인기의 요인으로 파악된다.

이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총 50명이 입학해 49명이 졸업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이를 기념하며 더욱 정진해 인천의 스승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는 보살계를 봉행하면서 의미를 더했다.


흥교 대종사가 승려교육원 1기 수료식 · 보살계 수계식에서 연비하는 모습.

수료식은 △개식 △삼귀의 및 반야심경 △고불문 △축가 △내빈소개 △학교 및 승려교육원 소개 △격려사 △축사 △법어 △수어 축가 △공지사항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서해 흥교 대종사, 전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 학장 범혜 스님, 승려교육원 운영위원장 자인 스님, 최금식 후원회장, 김경숙 싱잉볼치유의소리 대표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흥교 대종사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라 할 정도로 중요하고 큰 영향을 끼친다"며 "마음이 평화로우면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평화로워진다.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잘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운영위원장 자인 스님은 "입학한 스님 대부분이 수료를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해주신 교수진스님들과 전문가들의 노력에 감사하다. 학장스님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오늘 수료를 시작으로 도반스님들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정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은 "오늘 이 자리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불교의 출발은 삶에 대한 물음, 즉 의문으로 시작한다. 모든 종교를 비교해 의문으로 시작한 종교는 불교가 유일하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의 해답을 불교가 가지고 있다. 지금 공부하는 과정들이 그 해답을 아는 성불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축사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이날 후원으로 승보의 발전을 기원한 최금식 후원회장(선보공업 주식회사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최금식 후원회장은 "이 일에 동참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인 것 같고 자랑스럽다"며 "승려교육원을 설립해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스님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교육원은 앞으로 2기 붓다볼 명상지도사 1급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수강생 정원은 30명이며, 상반기 강의는 13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범어사 스님들은 독립운동 주역"

범어사 3·1운동 105주년 기념식…"소중함 잊지 말자"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3월 1일 현충시설 유공비 앞에서 '3·1운동 105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사진〉 기념식에는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해 이윤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과거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스님들과 독립투사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자주독립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다"며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희 신도회장은 "범어사 스님들과 학생들이 주도한 만세운동은 부산 독립운동의 기폭제였다"며 "3·1운동 105주년을 맞아 소중함을 되새기는 마음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범어사 3·1운동 유공비는 1919년 부산 만세운동의 주역인 범어사와 지방학림, 명정학교의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환경지킴이로 거듭난 복지관들

불국토 산하 8개 복지기관 '녹색복지시설' 협약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이사장 범산 스님) 산하 복지기관 8곳이 부산불교환경연대와 협약을 맺고 환경지킴이가 될 것을 서원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 스님)는 3월 6일 부민노인복지관에서 '녹색복지기관 실천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 협약기관은 동삼종합사회복지관,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수영구자원봉사센터, 부민노인복지관, 수영구노인복지관, 광안노인복지관, 컴넷하우스, 영주암어린이집이다.

안도 스님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모르는 인간의 무지함이 안타깝다"며 "모든 만물은 인드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환경오염을 자신의 일이라 여기고 실천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선교종 창종 이념 선교겸수로 정진"

한국불교선교종 사천왕사서 혜만 대종사 증명 법계품수 대종사 6명 탄생, 정진 다짐



선교종 본산인 사천왕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법계품수식에서 종정 혜만 대종사와 스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선교종(총무원장 대풍 스님)이 3월 6일 선교종 본산 사천왕사에서 법계 품수식을 봉행했다. 선교종 제7대 종정 경보 혜만 대종사의 증명으로 진행된 이번 품수식에서는 대종사 6명이 새롭게 탄생했다. 종사, 종덕, 대덕, 중덕을 새롭게 품수한 스님들도 함께 불퇴전의 정진으로 더욱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품수식은 타종으로 시작해 개회 선언 후 종정스님의 등단에 이어 삼배 정례하고 법을 청했다. 혜만 대종사는 "밝은 달은 저물어 떨어져도 하늘을 떠나는 법이 없고 넓은 마음에는 천당과 지옥에 차별이 없도다. 부처님의 참된 지혜를 깨달음의 근본으로 삼으면 인연 따라 곳곳마다 광명이 차고 넘친다"고 설법했다. 이어 "오늘 법계품수식에 동참한 모든 인연 공덕으로 부처님께 더욱 나아가는 정진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대풍 스님은 "법계라는 것은 승가의 위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품수자들은 종단의 기둥과 같은 분들"이라며 "살아 있는 부처님, 생불이라 할 수 있는 종정 혜만 대종사님을 위시해서 오늘 종사, 종덕, 대덕, 중덕을 새롭게 품수한 스님들은 종단의 발전을 위해 더욱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진행되는 법계 품수 의식은 법계고시위원회에서 준비한 절차에 따라 여법히 마련됐고, 고시 과정을 모두 마치고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법계를 받은 스님들을 대표해 종덕 성우 스님은 고불문을 낭독하며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성우 스님은 "엄중히 치러진 법계고시를 통해 종단의 위계와 존경의 대상이 되는 대종사를 비롯한 종사 이하 종덕, 대덕, 중덕의 품계가 오늘 내려졌다"며 "이 법계에 따라 위로는 대덕 큰스님을 존경하고, 아래로는 후학스님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교종 창종 이념인 선교겸수를 잊지 않고, 치우침 없는 스승의 면모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기장 동림사, '아미타여래좌상' 점안

지난해 부산시 문화재 지정



기장 동림사(주지 성타 스님)가 3월 3일 경내 대웅전에서 아미타여래좌상 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백양사 전 방장 지선 스님, 주지 성타 스님, 정종복 기장군수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성타 스님은 "인연이 되어 동림사에 아미타여래본존불을 모시게 됐다"며 "아미타 도량으로 지역의 발전과 불국토를 기원하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동림사 목조여래좌상은 1680년에서 1700년대에 조각승 법종 스님이 조성한 불상으로 추정된다. 법종 스님이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해 묘련사와 양산 법천사 보살상 2구가 이미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고려해 지난해 부산시는 동림사 아미타여래좌상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전품목 10~30%
승복·가방 50% / 가구·병풍 30% 할인
※ 제품 소진시 까지 ※ 일부 품목 제외 ※ 택배비 포함된 가격입니다.
등 설치 할 인 — 설치 스카이 3월 30일까지 할인 / 다양한 연잎 등살 등작업 3월 말까지 행사 중
사월초파일 제품 할인 — 인등 신제품 출시, 주문제작 가능 / 충전 전기초 출시 (1회 충전시 30일 지속, 5종류) / 반야심경/산신/용왕/연꽃 84,000원
입춘대길 수제 인쇄부적 할인 — 수제부적 50장 20,000원 / 국산 전기선 LED전구 100개 이상 1,300원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2024 초파일 미리 준비하세요
삼베,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식물성 양초 - 그을음 없는 최상급 (흰색, 노랑색 가격동일)
7일초 팝초 20개, 노란색 최상급 20개 소진시까지 ····· 65,000원
5일초 24개 ····· 70,000원
3일초 40개 ····· 70,000원
1일초 90개 ····· 80,000원
15일초 12개 ····· 100,000원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흰색 식물성 양초 B급 (※반품 안됨※)
7일, 5일, 3일 ····· 50,000원
15일 ····· 70,000원
천왕배 오색길배-최상급
개당 4,500원 / 30개 135,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대통부 6,000원
삼베옷 6,000원
속옷 남자 여자 각각 100장 이상 가격 15만원
베네저고리 1,500원 50장 이상 가격 75,000원
파라핀 오일 1BOX(12개) 65,000원
부정풀이 1BOX(100개) 100,000원
불상 7치 500개 12.000원 / 1000개 11.000원
※칠보 개금 할인 (기존 불상 가능, 3자 기준 좌포함 220만원)
※불상 조각 조성 (소불 500불 이상 1불 당 12,000원, 1000불 이상 11,000원)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054-762-8200 /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